



고령자 백신 접종 시작... “해방감에 행복”

1일 차분한 분위기 속 접종센터서 화이자 접종 백신 확보 물량 도착하는 대로 순서에 따라 진행

제주도에 첫 예방접종센터가 개소한 가운데 고령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만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된 1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은 이른 아침부터 백신을 맞으려는 어르신들로 북적였다.

백신 접종을 위해 온 시민들은 곳곳에 배치된 접종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체온측정, 문진표 작성, 신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오전 8시30분 차분한 분위기 속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접종은 예방접종센터 내에 마련된 접종 부스 안에서 진행됐다. 예진까지 마친 어르신들은 차례대로 부스 안으로 들어가 접종을 했다.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은 30분 가량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상반응관찰 대기실에서 대기했다. 의사가 대기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의료진 관계자는 “주의사항을 재차 안내드리면서 이후에 증상이 심해지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해 달라고 어르신들께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30분이 지나 이상 반응이 없는 어르신들은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귀가했다.

이날 백신을 맞은 양춘자 할머니(78·일도2동)는 “동사무소에서 백신 접종 대상자라는 안내가 와 접종하러 왔다”며 “접종 받은 부분이 묵직한 점을 제외하면 평소와 같다.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에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방역당국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카이스트 이동형 음압병동과 119응급구조대 등을 예방접종센터 내에 마련·배치했다.

제주도는 직제순으로 일도1동과 일도2동 지역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기준, 접종 여부에 대해 조사된 만 75세 이상 도내 인구(3만9100명) 중 84.8%인 3만3600명(제주시 2만2800명, 서귀포시 1만800명)이 접종

동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서귀포시 시민들을 위한 백신 접종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부족 현상으로 인해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은 “이후 들어올 백신 계획이 잡히지 않아 언제 들어올지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제주시 읍면동 사전예약을 받고 백신 확보 물량이 들어 오는대로 순서에 따라 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첫날부터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628·629번)이 발생한 사실을 통해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628번과 629번은 서울 강남구 확진자인 A씨의 지인으로, 모두 제주도민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에 머물다 서울로 돌아간 후 같은달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628번은 지난달 26일, 629번은 지난달 26일부터 그달 28일 사이 A씨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 접촉자로 분류돼 31일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튿날 확진됐다.

628번은 도 방역당국에 지난달 30일부터 근육통 증세가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629번은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다. 이들은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받는다.

제주도는 이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CC(폐쇄회로) 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만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대상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상민기자

백신 접종한 70대 할머니 의식저하 긴급 병원 이송

제주시 한라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70대 할머니가 의식저하로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A(77)씨가 의식 저하 증상 등이 발생했다.

예방접종센터 내에서 대기중이던 접종센터 구급대는 응급처치 후 곧바로 제주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이상 증세가 발생한 A씨는 약 2년 전 조영제(혈관 검사할 때 투입되는 약물) 알리지 반응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7월 결론

제주교육공론화위 6월 하순쯤 권고안 제출 이석문 교육감 7월 중 수용 여부 결정·발표 도민참여단 토론회는 5월 29일 개최될 예정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잠정 중단됐던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논의가 재개된 가운데 오는 7월에는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1일 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공론화 제2호 의제인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의 추진 세부 일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기됐던 도민참여단 토론회는 오는 5월 29일 개최

된다. 220명이 참여하게 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해 장소를 분산,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열리게 된다.

도민참여단 토론회에서는 ‘일반고 전환 이후 제주외고의 변화 방향’과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에 대한 토의가 이뤄지게 된다.

토론회 과정에 사전·사후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공론화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하순쯤 정책 권고(안)를

작성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제출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정책 권고안에 대한 교육감의 수용 여부는 7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속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공론화위와 제주외고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기회 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원활한 대화 창구 역할을 맡을 소통담당위원으로 류재식 위원을 별도 선임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도민참여단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최대한 수렴하고 도민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자가격리 중 외출한 40대 벌금형

제주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외출을 강행한 4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2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근접 거리에 앉은 일 때문에 같은 달 27일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같은 달 30일 오전 10시20분쯤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제주 시내로 외출을 강행,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에게 적용된 ‘자가치료’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격리’ 조치만 했을 뿐 ‘치료’ 조치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병직 부장판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 탐나는전 불법행위 4건 적발

환전해주고 차액 편취 등 수법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으로 이득을 취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단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탐나는전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4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반은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환전 내역을 분석해 가맹점 물품가액 대비 과다한 금액이 환전됐거나 동일인이 구매한 탐나는전이 지속 환

전된 사례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재래시장 근처 소재 가맹점주가 지인의 요구에 따라 환전해주고 차액을 나눠 가지거나,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도는 적발 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조직적인 위법 행위라고 판단될 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교통사고 렌터카운전자 사망

1일 오후 1시26분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오설록 인근 도로에서 A(37)씨가 운전하는 렌터카가 주차돼 있던 포클레인과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를 일으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씩씩음, 균형 영양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문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비료점, 국제보청기(국제기개점),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개 2층)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요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골 1,3,4년생

병자묘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